

I. 서 론

1. 연구목적

기업은 적절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품생산, 판매 등 다양한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경영활동 과정에서 기업에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제품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여 매출액 감소와 이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가 수반된다¹⁾. 이러한 현상은 기업의 경영활동이 수직적 또는 수평적으로 원자재 공급, 조립, 완성, 판매 등으로 분할되면서 다양한 부문에서 발생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기업 경영의 글로벌화는 이러한 손실의 가능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기업들은 화재, 배상책임, 인적손해 등과 관련한 리스크에 대해서는 익숙하지만 경영활동 중단, 기업평판 하락, 종업원 등의 횡령 등으로 인한 리스크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는 미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경영활동의 중단은 제품생산에 차질이 생겨 곧바로 매출액 감소와 이익축소로 나타나기 때문에 다른 요인에 비해 보다 체계적으로 리스크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리스크관리에 재무적 수단으로 보험제도가 활용되고 있는데 이를 기업휴지보험(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이라고 한다. 기업휴지보험은 산업혁명 이후 대량생산이 가능해지면서 매출액 감소에 대비한 상품으로 만들어져 현대와 같은 상품으로 발전되어 왔다. 기업휴지보험은 산업혁명으로 기업이란 조직이 생겨나고 대량생산이 가능해지면서 그 수요가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현대와 같은 상품체제로 발전하기까지 200여년이 걸렸다. 기업휴지보험시장은 선진국의 경우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휴업으로 인한 간접손실 리스크를 보험으로 전가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기업휴지보험이 손해보험시장

1) 호주의 경우 기업이 주요한 물질적 손해(major material damage)를 입은 경우 피해기업의 71%는 도산(43%는 즉시 재가동 불가, 28%는 3년 이내에 파산)하며 29%만 재가동을 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federal government all business statistics-following a major material damage loss) ; www.latrobe.edu.au/aurims/downloads/2008notes/Presentation%20Gerald%20Ewing.ppt

의 주요시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에는 기업휴지보험의 수요도 미진하며,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는 상품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휴지보험은 다른 리스크에 비해 재무적 손실 부분을 담보하기 때문에 회계제도가 불투명하고 신뢰성이 낮은 경우 인수리스크를 정확히 측정하기 곤란하여 손해사정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보험계약자 집단은 매우 크나 선택적인 가입으로 인해 가입건수는 매우 적고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 심하며, 상장회사가 아닌 경우 리스크 측정이 어려운 현실 등의 요인으로 인해 보험회사들의 적극적인 상품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리스크관리는 과거의 순수리스크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전사적 리스크관리(enterprise risk management)개념으로 전환함에 따라 이에 기업휴지보험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국내 기업들의 기업휴지보험의 수요는 앞으로 서서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가입건수의 증가는 보험회사의 리스크 증가로 결부되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기업휴지보험의 정확한 리스크파악 및 획기적인 상품의 운영을 통해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업들이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발생하는 영업상의 손실에 대해서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기업휴지보험의 역할을 강조하는 동시에 기업휴지보험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여 향후에 보다 많은 기업들이 기업휴지보험을 활용하여 기업의 경쟁력과 사업의 연속성의 제고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 선행연구

송일(1989)은 일본에서의 이익보험의 보급률은 1987년 기준 6.2%로 프랑스의 20%, 독일의 50%에 비해 크게 낮아 일본 기업들의 보험인식이 크게 낙후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화재보험에 부대하는 특약형태의 상품에서 별도의 독립적인 이익보험상품으로 확대되어야 함을 제

시하였다.

오해송(1996)은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기업휴지보험 상품의 변천내용을 정리하고 현재 미국 총수익방식을 근간으로 만든 기업휴지보험특약을 이해하기 위하여 미국의 총수익방식의 상품을 설명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山崎頼美(2006)는 전략적 기업경영에 있어 영업중단리스크의 손실 노출단위의 파악 및 분석에 대한 의의를 제시하기 위하여 제약이론(theory of constraint)을 활용했다. 그는 기업시스템의 목적이 현재로부터 미래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라면 총투자나 경비를 절감하여 스루풋(제품을 판매하여 기업에 돌아오는 돈 : 매출액-자재비)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제약이론과 기업휴지보험의 피보험이익이 거의 동일하다고 주장했고, 기업휴지보험을 기업의 이윤 증대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기업휴지보험에 대한 이론적인 소개와 현황에 대한 단편적인 서술에 그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 연구들에서 제시된 이론적인 내용을 포괄할 뿐 아니라 기업의 전사적 리스크관리와 사업연속성 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서 기업휴지보험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 제시하고자 하였다.

3. 연구방법 및 구성

국내에 기업휴지보험이 도입된 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손해보험의 국제적 위상이 10위권으로까지 성장하였지만 기업휴지보험은 하나의 보험종목으로서 개념조차 정립되지 못했고 기업들의 리스크관리에 대한 기여도 역시 일반적으로 낮은 상태에 있다.

본 연구는 향후 기업휴지보험이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기업중단리스크에 대한 기업들의 보험가입 활용사례를 분석하고, 기업중단리스크의 규모를 추정하였으며 기업중단 리스크관리에 있어 조건제약이론(theory of constraints)과 영업레버리지와 관련하여 기업이익의 목표인 적정 이익달성에 기업휴지보험이 활용될 필요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일본,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의 기업휴지보험 현황을 기존문헌, 인터넷 조사를 통해 정리하였으며, 국내 기업들의 기업휴지보험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국내 10개 보험회사의 영업부서에 설문지를 의뢰하고 고객으로부터 접수받는 방법과 상장회사 중 496개 업체를 랜덤추출하여 설문지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접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기업휴지보험의 가입현황, 가입사유, 미가입 사유, 보험가입의 만족도, 향후 가입의향, 활성화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지의 회수는 총 73부로 4개 보험회사의 영업부서로부터 56개가 회수되었으며, 우편을 통해 상장회사로부터 17부가 회수되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기업휴지보험의 국내 활성화를 제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제I장은 서론으로 구성되었고, 제II장은 기업휴업손해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기업휴지리스크의 개념과 원인, 국내 기업휴지리스크 규모 추정, 휴지리스크관리에 있어 보험제도의 효용, 기업휴지보험의 특성 등을 기술하였다. 제III장은 미국, 영국, 일본에서 운용중인 기업휴지보험에 대한 상품종류, 보험활용 현황을 조사하여 분석하였고, 제IV장에서는 국내 기업휴지보험의 시장 규모를 통계청에 있는 기업들의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명세서를 이용하여 휴업손실 규모와 보험료 규모 등을 추정하였으며, 그동안 국내에서 운영되어 온 기업휴지보험의 상품 체계와 활용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평가하였다. 제V장은 기업휴지보험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장으로 기업들이 인식하고 있는 활성화요인을 분석하여 활성화 방향성을 설정하고 상품측면, 보험료부담문제, 마케팅측면, 세제지원 등 정책지원측면에서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제VI장은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맺었다.